

# “전성기는 아직”...새 역사 향한 질주는 계속된다

‘왕중왕전’ 제패 안세영, 시즌 최다 11승 금자탑

한국 단식 최초 AG 2연패 도전, 亞선수권 제패하면 ‘그랜드슬램’  
‘BWF 슈퍼 1000 그랜드슬램’ 겨냥...역대 최초 대기록 작성 주목

“제 전성기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어린 선수 속에 속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은 올해 ‘세계 최강자’다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여럿 잡아차웠다.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천175달러)을 모두 경신한 안세영은 이제 또 다른 기록을 향해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준결승에서 ‘천적’ 아마구치 아카네(일본)를 꺾은 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다치지 않는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세계랭킹 상위자 우선 선발 규정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될 안세영은 내년 주요 국제대회에서도 한 번 정상자의 자리를 겨냥한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석권한 안세영이 내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경우, 한국 단식 선수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여자 단식의 전설적인 선수 방수현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다.

방수현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한국 단식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2회 연속 우승에는 닿지 못했다.

아시안게임보다 역사가 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제껏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 단식 선수는 없었다.

안세영은 지난 2023년,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하며 이미 한차례 새 역사를 쓴 바 있다.

또한 안세영은 내년 4월7일 중국 닝보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간절히 바라왔던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

그는 2023년 세계선수권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이어 아시안선수권까지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미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을 모두 제패한 그는 올해 허벅지 부상으로 아시안선수권에 결장했지만, 내년에 마침내 대기록 수립에 도전장을 내민다.

안세영은 올해 BWF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에 4개의 슈퍼 1000시리즈 대회를 석권하는 ‘슈퍼 10



지난 21일 열린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단식 결승에서 왕중이를 꺾고 시즌 최다승을 달성한 안세영이 두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00 슬램’에 도전했다가 마지막 대회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 마지막 1000시리즈 대회였던 중국오픈에서 한예(중국·3위)와 4강전을 치르던 안세영은 2게임 도중 기권했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고,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를 지속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선택이었다.

‘슈퍼 1000 슬램’은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올해 안세영이 이 기록에 근접하며 최초 사례로 이목을 끌었다.

슈퍼 1000대회는 BWF 월드투어 중 랭킹 포인트와 상금이 가장 많이 걸린 최상위급 대회로 2023년 승격된 말레이시아오픈을 비롯해 전영

폰, 인도네시아오픈, 중국오픈이 해당한다.

남자 단식 덴마크의 빅토르 악셀센은 슈퍼 1000 대회 4개에서 모두 우승을 맛봤지만, 한 해에 이룬 기록은 아니다.

안세영은 내년 1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오픈에 출전해 첫 새 역사 창조의 시동을 건다. /연합뉴스

## 전남 바둑, KBF바둑리그 ‘정상에 서다’

에이스 신현석 대회 MVP 영예

전남 바둑이 2025 KBF바둑리그에서 정상에 우뚝 섰다.

전남팀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KBF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군포시를 3-2로 제압했다.

정규리그 1위팀 전남은 이로써 종합전적 2승 1패로 대망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2025 KBF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은 남자 3명, 여자 2명 등 총 5명으로 팀을 이뤄 진행되는 경기방식으로 정규리그 1위 전남은 군포시와 챔피언결정전에서 3번기로 맞대결 승부를 가렸다.

전남은 1차전에서 패했으나, 2, 3차전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극적인 역전승으로 지난해 준우승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날 전남은 신현석(36), 이루비(27), 김현석(20)이 초반 세 판을 연속으로 따내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다.

1국에 출전한 전남 ‘에이스’ 신현석은 군포시 백운기를 상대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2025 KBF바둑리그 챔피언에 오른 전남 선수단. 왼쪽부터 허영락 코치, 김현아, 김현석, 신현석, 신철호 감독, 이루비, 한유정, 홍근영, 김진우. <전남도체육회 제공>

팀에 천금같은 첫 승을 안겼다.

이어 2국에서는 이루비가 김지수를 상대로 전남에 이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승리를 거두고 전남의 분위기를 우승 전선으로 한층 끌어올렸다.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3국에 나선 김현석은 최우수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

어지는 MVP는 신현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현석은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만 3연승을 기록하며 팀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팀을 정상으로 이끈 전남 신철호 감독은 지도력을 인정받아 감독상을 수상했다.

대한바둑협회가 주최하는 KBF바둑리그 우승 상금은 2천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천200만원이다. /박희중기자



## “현장에 답있다...지도자가 미래를 바꾼다”

광주시체육회, 2025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 성료

“현장 지도자의 열정이 광주체육 미래를 바꾼다.”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문체육지도자 29명을 대상으로 ‘2025 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각종 전국규모 대회 출전 등 한해 동안 체육지도자들이 일궈왔던 성과를 공유하고, 지도자 간 엘리트체육의 방향성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스포츠과학 및 AI 기술 활용 등 과학적인 훈련 기법 등을 도입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된 사례들도 공유하며 차세대 광주체육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이 더욱 빛을 내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와, 우수한 선수, 기관(학교)장들의 지원, 쾌적한 체육시설 등 4가지 요소가 충족됐을 때 가능하다”며 “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선수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18초·23초’...프로야구 피치 클락, 2초 더 빨라진다

2026 프로야구 달라지는 규정들

KBO는 지난 15일 2025년 제8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 시즌부터 적용되는 KBO 리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경기 속도 개선과 부상자 명단 완화, 퓨처스리그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변화다.

▲피치클락 운영

KBO 리그 피치클락 운영은 투구 간격을 현행 대비 2초 단축하여 주자 없을 시 18초, 주자 있을 시 23초로 적용하기로 했다. 퓨처스리그 피치클락 운영은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부상자 명단 규정 개선 관련

현역 선수로 최소 1일 이상 등록된 선수만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이 가능한 현행 부상자 명단 등재 규정과 관련하여, 시범경기 개막일 이

후 경기·훈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도 개막전 엔트리 공시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및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부상에 대한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 신청자의 경우, 연장 신청부터는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선수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된 선수가 부상자 명단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즌 포스트시즌 종료일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소명하고, KBO가 승인할 경우 구단당 연 3회에 한해 등록일수 인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퓨처스리그 경기일정 편성

2026년 퓨처스리그는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각각 6개 구단 체제로 재편성되며 내년 3월 20일에 개막한다. 또한 중계 노출 효과 증대를 위해 매주 월요일 두 경기를 개최한다.

7-8월 중 야간 경기인 서머리그를 거행하되 올산 경기는 기간 구분 없이 최대한 야간 경기로 편성하고, 혹서기 경기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의 경기를 늘리고 7월부터 9월까지의 경기 편성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4월과 5월에 취소된 경기에 한해 다음 달 더블헤더를 거행하고, 더블헤더 시 엔트리는 2명 증원하며, 1·2차전 모두 7이닝으로 진행하고 승부차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KBO 배트 공인규정

KBO 배트 공인규정 중 공인된 업체를 통해 유통되지 않은 배트일지라도 MLB, NPB 공인 배트에 한해 사용을 허가해주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시즌 중 추가 공인 절차를 신설하여 기존 정규 공인 신청기간(1월) 외에도 시즌 중 8월 31일까지 동일한 절차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홍철기자

## 손흥민, 볼리비아戰 환상 프리킥 ‘KFA 올해의 골’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LAFC)이 지난 11월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터트린 기막힌 프리킥 득점(사진)이 ‘2025 대한축구협회(KFA)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팬들이 직접 참여한 ‘2025 KFA 올해의 골’과 ‘2025 KFA 올해의 경기’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축구협회 마케팅 플랫폼 ‘PlayKFA’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1천450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손흥민이 지난 11월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뽑아낸 프리킥 득점이 57.4%의 지지를 얻어 올해를 가장 빛낸 골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후반 12분 페널티아크 왼쪽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오른쪽 슈팅으로 수비벽을 넘기고 골대 왼쪽 상단에 볼을 꽂았다.

이로써 손흥민은 2023년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와의 홈경기 중거리 슈팅 득점과 2024년 아시안컵 8강 호주전에서 나온 연장전 프리킥 득점에 이어 3년 연속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